

중년 부부의 배우자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공감 유형과 성별에 따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Received: July 16 2026
Revised: August 17 2026
Accepted: August 23 2026

양재원¹, 양수진²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석사¹,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ujinyang@ewha.ac.kr

Spousal Empathy and Midlife Crisis Among Middle-Aged Couples:
Actor and Partner Effects by Empathy Type and Gender

Yang Jaewon¹, Yang Su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 해당 논문은 양재원(2024)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해당 논문은 2026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발달 분과 포스터로 발표됨.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배우자를 향한 관계특정적 특성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부부관계 속에서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을 활용하였다. 이에 50~64세의 중년 부부 126쌍을 대상으로 배우자 공감 척도와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의 인지적 공감은 각각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한 부적 자기효과를 나타냈고, 상대방효과에서는 남편의 인지적 공감만이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정서적 공감에서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내의 정서적 공감은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과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한 부적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나타냈다. 효과 크기 비교에서는 부부간 및 경로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배우자의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된 상대방효과는 남편의 인지적 공감과 아내의 정서적 공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공감 유형과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부부 대상 개입에서 공감의 다차원적 특성과 성차를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하였다.

주요어 : 중년 부부, 성별,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중년기 위기감,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중년기를 의미하는 연령대가 확장되었으며, 연장된 인생 후반기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KOSIS, 2026), 국가 차원에서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황남희 등, 2019). 중년기는 사회적 지위 확립 및 경제적 안정으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인 동시에(Erikson, 1982), 경험과 정서, 충동에 대한 내적인 통합 및 조정으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Kogan, 1990), ‘인생의 황금기’로 언급되기도 한다(Berk, 2007). 이처럼 중년기는 오늘날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발달단계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년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족 역동, 적응 실태, 성공적 노화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전해옥 등, 2018).

한편, 중년기는 개인의 성숙과 사회적 성취가 두드러지는 시기인 동시에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발달적 과업에 직면한다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생애주기 발달적 관점에서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전환기로, 신체적·인지적·심리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이다(심은정, 조인호, 2018). 부모 부양과 자녀 독립 지원에 따른 이중 부담은 중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이은영, 왕은자, 2017), 해결되지 않은 긴장과 상실감은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우울(김순숙, 2012; 김춘경, 2011),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정순돌, 구미정, 2011). 즉, 중년기의 위기감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향후 삶의 영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년기는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의 가

족체계로 전환되면서 배우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최인영, 2007). 중년기 위기감을 극복하는 데 부부관계와 같은 가족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참작하면(이은아, 정혜정, 2007), 부부라는 짝의 맥락에서 발달적 전환기를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강혜숙과 김영희(2012)는 부부의 성격 특성이 서로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부부 각자의 내적 특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질에도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중년기 위기감 연구는 삶의 의미, 자아정체감, 자아분화, 그릿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예본, 양수진, 2021; 변영인, 2011; 변외진, 김춘경, 2007; 황예은, 양수진, 2020), 위기감이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전해옥 등, 2018). 따라서 중년기 부부가 장기간 생활사건을 공유해 온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윤운하, 2018), 중년기 위기감을 개인의 특성에 한정하여 이해하기보다 실제 위기감이 경험되는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 내적 특성 가운데 공감은 일반적인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커플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주열, 2015). 타인을 정서적·인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기능적인 의사소통(권윤아, 김득성, 2011)이나 관계에서의 만족도(Long et al., 1999)를 촉진하면서 건강한 커플 관계를 예측한다(Simpson et al., 2003). 특히, 중년기 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중년기 위기감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임주영, 2022; 최미란, 2020), 부부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배우자 공감(Long et al., 1999)은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 있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경험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및 공명과 같은 정서적 과정과 의식적인 통제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감정 체계이다(Singer, 2006). 초기에는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강조되었으나(Mead, 1934), 이후 타인의 정서 경험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Feshbach, 1978). 이에 공감을 단일요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복합요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의 결과, 다차원적 관점을 근거로 한 복합적인 구성 개념으로 개념화하는 학자들이 증가하였다(Davis, 1980).

Davis(1980) 역시 공감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공감을 관점 취하기, 상상,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제작하였다. 관점 취하기는 타인의 심리적 관점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공감적 관심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반영하여 각각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타인지향적 측면을 대표한다(Davis, 1994). 반면, 상상은 허구적 인물의 감정과 행동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향을 측정하여 실제 상호작용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과는 개념적 차이가 있으며,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경험하는 불편감과 불안을 반영한다(Davis, 1994).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타인지향적 공감의 주요 차원으로, 개인적 고통과 상상은 상대적으로 자기지향적 반응을 포함하는 차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Toffol et al., 2025), 상상 척도의 경우 개념적 해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Shalev et al.,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라는 실제 상호작용 상대를 이해하고 그 정서에 관심을 기울

이는 관계특정적 공감에 초점을 두어,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을 각각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배우자 공감이 자신과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여 왔으며, 남성은 비교적 과업 중심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상호작용을, 여성은 정서적 표현과 관계지향적 상호작용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Thomas & Fletcher, 2003; 김용희, 2007).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우세한 나라이기 때문에(남순현, 권정혜, 2015),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성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공감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최현옥, 김혜리, 2010), 한국의 경우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여성이 남성의 공감 특성이나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김미정, 조영주, 2017).

이러한 성차는 공감 수준 자체뿐 아니라 공감이 관계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Carasso와 Segel-Karpas(2024)는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의 공감은 아내가 경험하는 결혼 생활의 부담이 정서적 친밀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 반면, 아내의 공감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배우자의 공감이 상대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배우자 공감뿐만 아니라 중년기 위기감 역시 성별에 따라 경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Lachman,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

성은 서로 다른 발달과업과 사회문화적 요구 속에서 중년기 위기감을 경험하며, 위기감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강양희, 2016). 예를 들어, 중년 남성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년 여성은 가족 외 사회적 지지와 자기돌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경희, 이정운, 2018). 더불어,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이나 존경, 인정을 기대하는 반면, 아내는 남편에게 애정과 관심의 표현, 대화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며(최규련, 2015), 실제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험과 결혼만족 간의 상대방효과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조성숙, 김민희, 2024). 즉, 중년 부부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대하고 경험하는 관계적 자원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배우자 공감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중년기 위기감의 보호요인이 모두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 공감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배우자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함께 고려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는 공감이 관계만족도(Long et al., 1999), 결혼만족도 및 배우자에 대한 용서(김현주, 안현의, 2011), 배우자 지지(김대광, 김영희, 2013)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이혼 경향(Long & Andrews, 1990)은 낮추면서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부부 쌍을 짝 표본으로 분석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공감과 관계만족의 자기효과는 일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osen et al., 2017). 부부관계 개선 및 부부 치

료, 부부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입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공감 능력의 증진을 제시하며(김희진, 2005; 박남숙, 2005), 정서적 역량과 공감을 포함한 개입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고하였다(Lovis-Schmidt et al., 2024).

나아가, 부부관계의 증진은 가족지지의 한 형태로,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외적 보호요인에 해당한다(안태용, 2013). 다수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및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년기 남녀의 위기감 극복을 위한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김은영 등, 2014; 이은아, 정혜정, 2007; 전해옥 등, 2018). 즉,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예: 결혼만족도, 용서, 배우자 지지)은 공감 능력에 의해 촉진되므로, 배우자 공감은 중년기 위기감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공감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탐색되어 왔으며(Fonagy et al., 2002; Surakarn et al., 2025; 정순옥, 최해연, 2021), 생애주기와 같은 발달적 맥락에서의 관련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중년기 위기감은 정신병리가 아닌 가정이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경험이라는 점에서(Lachman, 2015), 공감이 이러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어려움에도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년 부부는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생애사건을 공유하므로 부부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게 나타난다(윤운하, 2018). Kenny(1996)는 이러한 짝 자료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을 제안하였다. APIM은 짝

(dyadic) 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중 하나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하나의 쌍(예: 부부, 연인, 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해 구성원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통계 기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개인의 고유한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APIM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를 향한 관계특정적 특성인 배우자 공감이 자신과 배우자의 중년기 위기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이 자신과 배우자의 중년기 위기감에서 보이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고, 공감 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중년기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중년기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배우자 공감이 중년기 위기감을 예측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는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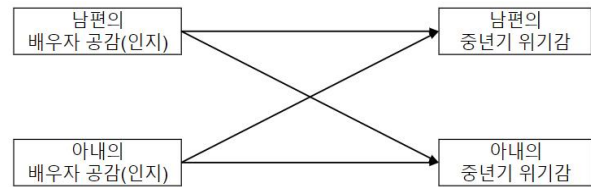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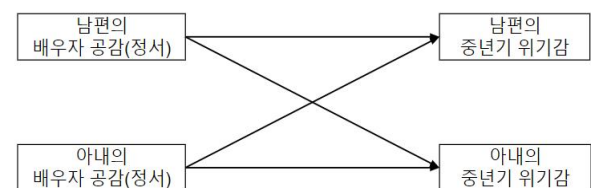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2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동거 상태이고, 막내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전국의 연 나이 50~64세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중년기의 연령 범위는 50~60대를 '신중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국내의 사회적·정책적 기준을 참고하되(황남희 등, 2019), 65세 이상이 노년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만 50~64세로 설정하였다. 총 27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수집된 설문 중 부부 양쪽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연령 등 연구 대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2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52명, 126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 126쌍 중 100쌍(79.4%)은 데이터 수집 전문업체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26쌍(20.6%)은 눈덩이 표집 및 SNS 홍보를 통해 모집되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연 나이 58.07세($SD=3.79$)였으며, 남성의

표 1. 연구 참여자의 가족 형태 특성

변인	구분	N(%)
결혼상태	초혼(사실혼 포함)	240(95.2%)
	재혼(사실혼 포함)	12(4.8%)
평균 결혼 기간	M(SD)	30.37년(6.01)
자녀 수	1명	28(11.1%)
	2명	178(70.6%)
	3명 이상	46(18.3%)
자녀의 취업 여부	예	146(57.9%)
	아니오	106(42.1%)
동거 형태	자녀	196(77.8%)
	손자녀	3(1.2%)
	시(처)부모님	7(2.8%)

주. 동거 형태는 배우자 외의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표기하였음.

N = 252, 126쌍

평균 연령은 59.16세($SD=3.59$), 여성은 56.98세($SD=3.68$)였다. 연구 참여자의 가족 형태 특성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배우자 공감

배우자에 대한 공감은 Pélouquin과 Lafontaine (2010)이 개발하고 이주열과 이영호(2017)가 번안 및 타당화한 이자간 공감 척도(Dyadic Empathic Scale)의 자기보고 방식(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 Self-reported version)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관점을 수용하는 경향을 평정하는 관점 취하기 7문항(예: '나는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배우자의 생각을 살펴보고 노력

한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 온정, 연민의 경향을 평정하는 공감적 관심 7문항(예: '나는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면 자주 마음이 쓰인다.'). 총 2요인, 14문항(총점: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점 취하기는 인지적 공감과 관련 있으며, 공감적 관심은 정서적 공감과 관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을 각각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지표로 사용하였다(Davis, 1994).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주열과 이영호(2017)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각 .82와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가 .85, 각 하위요인은 .85와 .66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전체 .85, 관점 취하기 .85, 공감적 관심 .63이었고, 아내의 경우 전체 .84, 관점 취하기 .85, 공감적 관심 .67이었다.

중년기 위기감

중년기 위기감은 이은영과 왕은자(201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중년기 위기감 척도(Korean Mid-life Crisi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 후회 6문항(예: '지나온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젊음의 상실 4문항(예: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생각에 서글퍼진다.'). 정서적 불안정 8문항(예: '예민해지고 감정기복이 심해졌다.'). 개별화 위기 4문항(예: '그동안 가족 내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으로 총 4요인, 22문항(총점: 1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중년기 위기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은영과 왕은자(201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및 남편과

아내의 신뢰도 모두 Cronbach's $\alpha=.95$ 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연구 대상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과 SNS 홍보, 데이터 수집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 링크를 업로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부부 각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응답자들의 부부 식별을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설문을 완료한 경우 기재한 전화번호를 통해 보상을 제공하였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약 15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으로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Mplus 7.0을 사용하여 자기-상대방 효과를 확인하였다. 세부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모든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 확인 및 변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 성차의 확인을 위해 평균차이 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이용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남편/아내)을 이론적 구분 변인으로 하여 부부를 구분 가능한 쌍(distinguishable dyad)으로 처리하였으며(김민재

등, 2022),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126쌍의 자료에는 결측치가 없었다. 본 연구의 모형은 가능한 모든 경로를 추정하는 완전판별 모형(just-identified model)으로 자유도가 0인 포화모형(saturated model)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형은 자료를 완전히 재현하므로 적합도 지수를 통한 모형 평가가 성립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김수영, 2016). 다섯째,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여섯째, 기본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를 비교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성차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의 분포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료의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그 값이 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였다(김수영, 2016).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의 집단 간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세 변수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인들 간 성차는 유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성차

변인		구분				t-test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중년기 위기감	남편	2.69	.71	.008	-.619	-.954
	아내	2.76	.73	.296	-.145	
인지적 공감	남편	3.37	.63	-.774	.737	.185
	아내	3.36	.61	-.178	.916	
정서적 공감	남편	3.65	.49	-.290	.259	.963
	아내	3.60	.53	.216	.501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1-1	1-2	1-3	2-1	2-2	2-3
남편 1	1-1. 중년기 위기감	-					
	1-2. 인지적 공감	-.266**	-				
	1-3. 정서적 공감	-.139	.641***	-			
아내 2	2-1. 중년기 위기감	.363***	-.258**	-.168	-		
	2-2. 인지적 공감	-.192*	.380***	.294**	-.300**	-	
	2-3. 정서적 공감	-.293**	.285**	.417***	-.297**	.546***	-

* $p < .05$. ** $p < .01$. *** $p < .001$.

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배우자 공감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본 연구는 공감의 다차원적 관점에 따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서로 구별되는 하위차원으로

보고(Oliver, 2017), 각 공감 유형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관련 양상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개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자신과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모형은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고자 두 가지 경로 모형을 설정한 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형은 포화모형이므로 모형 적합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편의 인지적 공감이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으로 가는 경로($\beta = -.226, p < .05$), 아내의 인지적 공감이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으로 가는 경로($\beta = -.236,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자신의 낮은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성이 시사되었다. 상대방효과에서는 남편의 인지적 공감이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으로 향하는 경로에서는 유의한 상대방효과가 나타난 반면($\beta = -.168, p < .05$), 아내의 인지적 공감이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06, p > .05$). 이는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은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아내의 인지적 공감과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형에 대한 자세한 경로계수 및 결과는 각각 <표 4>에 제시하였고, 최종 모형 경로도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모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편의 정서적 공감은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beta = -.023, p > .05$)과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beta = -.054, p > .05$)에서 유의한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편의 정서적 공감이 자신과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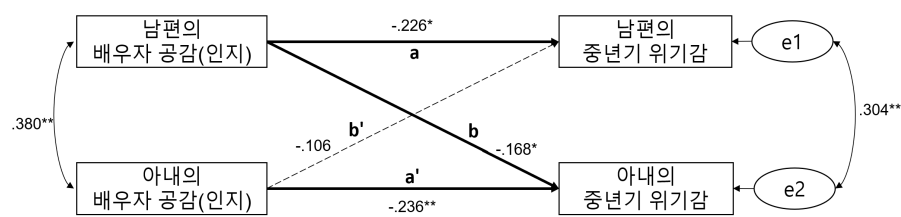
표 4. 인지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 자기효과, 상대방효과의 비표준화, 표준화 모수 추정치

	B	S.E.	p	β
자기효과				
인지적 공감(남편) → 중년기 위기감(남편)	-.255*	.112	.023	-.226
인지적 공감(아내) → 중년기 위기감(아내)	-.282**	.103	.006	-.236
상대방효과				
인지적 공감(아내) → 중년기 위기감(남편)	-.123	.115	.285	-.106
인지적 공감(남편) → 중년기 위기감(아내)	-.195*	.093	.036	-.168

* $p < .05$. ** $p < .01$. *** $p < .001$.

N = 252, 126쌍

주. 최종모형은 포화모형(df=0)이므로 적합도 지수는 산출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주. 표준화된 추정치를 제시하였음.

그림 3. 최종모형1 결과 경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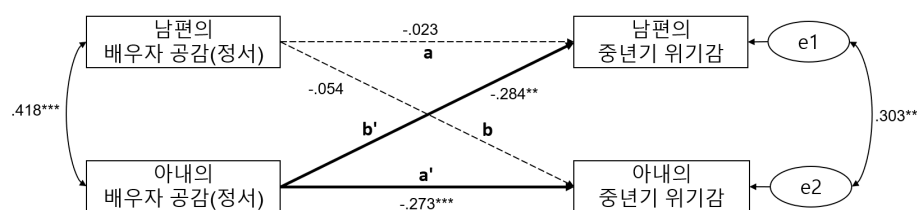
표 5. 정서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모수 추정치

	B	S.E.	p	β
자기효과				
정서적 공감(남편) → 중년기 위기감(남편)	-.033	.147	.823	-.023
정서적 공감(아내) → 중년기 위기감(아내)	-.374***	.102	<.001	-.273
상대방효과				
정서적 공감(아내) → 중년기 위기감(남편)	-.377**	.136	.006	-.284
정서적 공감(남편) → 중년기 위기감(아내)	-.080	.131	.539	-.054

* $p<.05$. ** $p<.01$. *** $p<.001$.

N = 252, 126쌍

주. 최종모형은 포화모형(df=0)이므로 적합도 지수는 산출되지 않음.

* $p<.05$. ** $p<.01$. *** $p<.001$.

주. 표준화된 추정치를 제시하였음.

그림 4. 최종모형2 결과 경로도

정서적 공감은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의 경로에서 유의한 자기효과를 보였고($\beta = -.273$, $p < .001$),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의 경로에서는 유의한 상대방효과를 보였고($\beta = -.284$, $p < .01$). 다시 말해, 남편과 달리 아내는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과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자세한 경로계수 및 결과, 최종 모형 경로도는 각각 <표 5>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효과 간 상대적 비교 검증(등가제약 설정 비교)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확인하고자 각 경로에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모형과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가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된다면 제약을 가한 경로에서 유의한 효과크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부부의 인지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를 탐색한 최종모형1에 대하여 <표 6>과 같이 부부간 자기효과($a=a'$)와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인지적 공감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a'=b$)에서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과 최종모형의 χ^2 차이 검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의 인지적 공감이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에 이르는 자기효과에서는 부부간 효과크기 차이가 유의하지 않

표 6. 최종모형1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결과

모형	χ^2	df	CFI	RMSEA (90% CI)	SRMR	χ^2 차이검증
최종모형	0	0	-	-	-	
등가제약1 (a = a')	.030	1	1.000	.000(.000-.127)	.004	$\Delta\chi^2(1) = .03, p > .05$
등가제약2 (a' = b)	.241	1	1.000	.000(.000-.186)	.009	$\Delta\chi^2(1) = .241, p > .05$

주. 최종모형은 포화모형(df=0)이므로 적합도 지수는 산출되지 않음.

았다($\Delta\chi^2(1)=.03, p>.05$). 즉, 남편과 아내의 인지적 공감이 각자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가 부부간에 다르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아내 자신의 인지적 공감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인지적 공감의 상대방효과 크기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Delta\chi^2(1)=.241, p>.05$). 즉,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을 완화하는 데 있어 아내 자신의 인지적 공감과 남편의 인지적 공감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서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를 살펴본 최종모형2에 대하여 <표 7>과 같이 아내의 정서적 공감이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상대방효과(a'=b')에서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과 최종

모형과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정서적 공감이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와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상대방효과 크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Delta\chi^2(1)=.001, p>.05$). 따라서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의 수준이 아내 자신과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표본 크기를 고려할 때 이는 효과크기의 동일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에

표 7. 최종모형2와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결과

모형	χ^2	df	CFI	RMSEA (90% CI)	SRMR	χ^2 차이검증
최종모형	0	0	-	-	-	
등가제약1 (a' = b')	.001	1	1.000	.000(.000-.000)	.001	$\Delta\chi^2(1) = .001, p > .05$

주. 최종모형은 포화모형(df=0)이므로 적합도 지수는 산출되지 않음.

대한 인지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를 확인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남편과 아내 모두 인지적 공감에서 유의한 부적 자기효과를 보였다. 이는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을 넘어, 그 사람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과도 관련됨을 의미한다. 즉, 배우자 공감은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관계적 특성에 그치지 않고, 중년기에 경험하는 발달적 변화와 심리적 혼란을 보다 적응적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공감이 부부관계 만족에 대해 유의한 자기효과를 보이며(Rosen et al., 2017), 배우자와의 관계 증진이 중년기 위기감 완화의 주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전해옥 등, 2018). 나아가, 인지적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고(배미정, 조한익, 2014),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년기 위기감을 극복하는 주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안태용, 2013)를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인지적 공감처럼 타인의 생각 및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감정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김용희, 2007). 후회감, 상실감, 우울, 무기력, 권태 등의 복합적인 부정적 생각 및 느낌이 중년기 위기감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이은영, 왕은자, 2017),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 수준은 자신의 심리적 혼란스러움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이 결혼 적응이나 이자간 안녕감(dyadic well-being) 같은 관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Long et al., 1999; Surakarn et al., 2025),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위기감을 극복하는 데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공감의 자기효과가 남편과 아내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는 인지적 공감이 성별에 관계없이 낮은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된 심리적 자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배우자의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된 상대방 효과는 남편에게서는 인지적 공감에서, 아내에게서는 정서적 공감에서만 나타났다. 즉, 유의한 상대방효과가 나타난 경로는 공감 유형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배우자의 위기감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서는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이, 아내에게서는 배우자의 정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정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보호요인의 성차 연구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고경희, 이정윤(2018)은 중년기에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의 형태가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위기감을 완화하는 데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김은영 등, 2014), 중년 여성의 위기감 완화에서 남편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었다(고경희, 이정윤, 2018).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 외의 사회적지지’의 수를 더 많이 보고했고 지지 대상 역시 다양했으며(고경희, 이정윤, 2018), 이러한 가족 외의 사회적지지 체계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극복에 큰 보호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김양호, 2005). 즉, 아내는 이미 오랜 기간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구나 친정 식구, 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윤정화, 한재희, 2013), 남편의 정서적 공감이 아내의 심리적 경험과 관련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남편은 도움 관계망으로서 아내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는 선행연구(한경혜 등, 2003)를 고려한다면, 아내의 정서적 공감은 남편에게 정서적 지지로 작용하여(고경희, 이정운, 2018),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자신과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성숙과 김민희(2024)의 중년 부부 대상 APIM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남편과 아내에게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며(김시연, 서영석, 2010),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감은 이러한 지지적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Davis, 1983), 해당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인지적 공감과 아내의 정서적 공감에서만 상대방효과가 나타나 공감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기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인지적 공감이 각각 본인의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지적 공감이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을 예측하는 정도가 남편과 아내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된 아내 자신의 인지적 공감(자기효과)과 남편의 인지적 공감(상대방효과)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두 경로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내의 정서적 공감에서도 자신과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두 효과크기 비교에서 어느 한 경로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효과크기 비교 결과는 본 연구의 표본 크기(126쌍)에서 그 차이를 탐지할 검정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공감의 자기효과 크기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Ulloa et al.(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들은 비혼 커플을 대상으로 APIM을 적용하여 공감과 관계의 질(relationship quality)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자기효과 크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공감이 자신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Ulloa et al.(2017)은 관계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고 공감을 단일자원으로 측정하였으며, 상대방효과의 크기는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공감 유형별 성차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관계특정적 특성인 배우자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배우자 공감의 의미를 발달적 맥락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공감은 건강한 부부관계와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기존 부부 대상 연구에서는 부부친밀감이나 결혼만족도, 용서, 부부갈등 등 주로 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탐색되어 왔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공감이 생애주기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년기 위기감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공감이 중년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하나의 관계적 요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중년기 위기감 간에 나타난 잔차상관을 고려하면, 부부가 공유하는 다른 요인 역시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중년 부부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에는 배우자 공감뿐만 아니라 건강, 경제적 상황, 부모 부양, 자녀 문제 등 중년기 부부가 함께 경험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APIM을 활용하여 중년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고, 부부 관계의 맥락에서 배우자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관련성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통해 동시에 살펴보았다. 기존 중년기 위기감 연구는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전해옥 등, 2018), 장기간 생애사건을 공유해 온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쌍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공감이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위기감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개입에서 배우자 공감을 하나의 관계적 요인으로 다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삶의 의미(김예본, 양수진, 2021), 자아정체감(변외진, 김춘경, 2007), 그릿(황예은, 양수진, 2020), 자아분화(변영인, 2011) 등 개인의 내적 자원에 주로 주목해 왔

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공감과 상대 배우자의 중년기 위기감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 중년 부부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개입에서 개인 내적 자원과 함께 부부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유의한 상대방효과가 공감 유형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에서 관찰된 만큼,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개입에서는 배우자 공감을 단일한 능력으로 간주하기보다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각 부부의 공감 표현과 수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공감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상대방효과의 차이나 실제 개입 효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개입 가능성은 향후 종단연구 및 개입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 크기($N=252$ 명, 126쌍)의 한계로 인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이 아닌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잠재변수 측정모형을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변인의 평균 점수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측정오차를 통제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나타난다. 특히, 정서적 공감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63\sim.67$)가 다른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측정오차가 두드러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별도의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나, 두 공감 유형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각 경로에 공유분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표본 크기를 충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측정 오차를 통제하고, 두 공감 유형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각 변인과 중년기 위기감 간의 고유한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을 비롯한 비확률표집 방식으로 연구대상을 모집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중년 부부에게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표집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에 기반하므로 변인 간 인과적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 배우자에 대한 공감이 중년기 위기감을 완화하는 방향뿐 아니라, 위기감이 낮아 심리적 여유가 있을수록 배우자에게 공감하기 쉬워지는 역방향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 및 성차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기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감정조절, 관계만족도 등의 매개변인을 검토하고, 종단설계를 통해 배우자 공감과 자신 및 상대방의 중년기 위기감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장기적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이 보고한 자신의 배우자 공감 수준만을 측정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지각한 공감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배우자 공감과 자신의 중년기 위기감을 동일한 응답자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자기효과에는 공통 방법분산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공감과 상대방이 지각한 공감 간의 차이, 즉 공감격차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측정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성별에 따른 공감의 지각과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모형은 포화모형이므로 적합도 지수를 통한 모형 평가나 대안모형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매개변인 등을 포함한 과대판별 모형(over-identified model)을 설정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공감과 중년기 위기감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을 활용하여 중년기 위기감을 살펴봄으로써 부부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의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되는 상대방효과가 남편에게서는 인지적 공감에서만, 아내에게서는 정서적 공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공감 유형과 성별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위기감 완화를 위한 부부 대상 개입의 방향성을 언급하며, 성차 및 공감의 다차원적 역할을 고려하여 중년기 위기감 개입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강양희 (2016).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344-353.

- <https://doi.org/10.5392/jkca.2016.16.02.344>
강혜숙, 김영희 (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상담학연구**, 13(6), 2861-2880.
<http://dx.doi.org/10.15703/kjc.13.6.201212.2861>
- 고경희, 이정운 (2018). 중년기 성인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인에 관한 개념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2), 279-301.
<http://dx.doi.org/10.15703/kjc.19.2.201804.279>
- 권윤아, 김득성 (2011).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인지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7), 67-80.
<https://doi.org/10.6115/khea.2011.49.7.067>
- 김대광, 김영희 (2013). 기혼남녀의 원가족 정서성과 공감능력 및 배우자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149-165.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ART001792352>
- 김미정,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63-288.
<http://dx.doi.org/10.18205/kpa.2017.22.2.008>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https://www.nypi.re.kr/lib/10150/contents/6212198>
- 김순숙 (201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기분화, 자아존중감,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2868760&outLink=K>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http://dx.doi.org/10.18205/kpa.2010.15.2.002>
- 김양호 (2005). 중년남성의 건강과 사회관계망 특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103-126.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ART001161698>
- 김예본, 양수진 (2021). 중년기 전업주부의 그림과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위기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논총**, 37(2), 5-31.
DOI: 10.16935/ejss.2021.37.2.001
- 김용희 (2007). 공감능력과 관련된 성격특성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73-585.
<http://dx.doi.org/10.17315/kjhp.2007.12.3.006>
- 김은영, 장미영, 정은영 (2014). 직장남성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갱년기 증후군, 대응행위가 중년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研究**, 22(2), 77-86.
<https://doi.org/10.17547/kjsr.2014.22.2.77>
- 김춘경 (2011). 중년기 우울 여성의 심리적 경험양상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3), 25-5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31943>
- 김현주, 안현의 (2011).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

- 담 및 심리치료, 23(1), 157-174.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ATN0030179548>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ATN0030109990>
- 남순현, 권정혜 (201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온·오프라인 교류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353-37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7891>
- 박남숙 (2005). 부부상담에서 집단상담의 치료적 활용: 문헌 고찰과 사례연구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97-111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5604>
- 배미정, 조한익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15(6), 2417-2435.
<http://dx.doi.org/10.15703/kjc.15.6.201412.2417>
- 변영인 (2011). 자아분화가 중년부부의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3(1), 183-19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065500>
- 변외진, 김춘경 (2007).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55-276.
<http://dx.doi.org/10.18205/kpa.2007.12.3.01>
- 심은정, 조인호 (2018). **20대를 위한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안태용 (2013). 중년기 한국인 적응유연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4(5), 2751-2781.
<http://dx.doi.org/10.15703/kjc.14.5.201310.2751>
- 윤운하 (2018). 중년기 부부의 장기결혼(long-term marriage)유지 경험에 대한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4), 549-573.
DOI: 10.21479/kaft.2018.26.4.549
- 윤정화, 한재희 (2013). 폐경기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연구. **상담학연구**, 14(4), 2195-2212.
<http://dx.doi.org/10.15703/kjc.14.4.201308.2195>
- 이은아, 정혜정 (2007).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301-329.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40052477861>
- 이은영, 왕은자 (2017).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81-503.
<http://dx.doi.org/10.23844/kjcp.2017.05.29.2.481>
- 이주열 (2015). **억압적 대처양식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3642117>

- 이주열, 이영호 (2017). 커플 관계에서의 공감: 이
자간 공감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지: 여성**, 22(4), 739-766.
<http://dx.doi.org/10.18205/kpa.2017.22.4.013>
- 임주영 (2022). 중년부부의 갈등과 친밀감에 있어
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문화와융합, 44(11), 901-914.
DOI : 10.33645/cnc.2022.11.44.11.901
- 전해옥, 김아린, 채명옥 (2018). 한국 중년기 성인
의 심리적 위기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2(3), 451-467.
DOI : 10.5932/JKPHN.2018.32.3.451
- 정순돌, 구미정 (2011). 우울 영향요인: 베이비부
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2(1), 305-324.
<http://dx.doi.org/10.21194/kjgsw..52.201106.305>
- 정순옥, 최해연 (2021). 공감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응.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5),
881-899.
<http://dx.doi.org/10.17315/kjhp.2021.26.5.003>
- 조성숙, 김민희 (2024). 중년 부부의 배우자 지지제
공과 지지받기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
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 **가족과 가족치
료**, 32(3), 485-501.
DOI : 10.21479/kaft.2024.32.3.485
- 최규련 (2015). **부부문제와 부부상담**. 신정.
- 최미란 (2020). 중년기 여성의 이혼위기감 형성 및
해소 경험 연구: 부부 집단상담 참여자를 중심
으로. **가족과 문화**, 32(2), 209-258.
DOI : 10.21478/family.32.2.202006.007
- 최인영 (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1039319&outLink=K>
- 최현옥, 김혜리 (2010). 대학생의 마음읽기 능력과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성향의 성차와 전공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19-139.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40051276081>
- 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 중년기 남녀의 사
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 155-
170.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3863973>
- 항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
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620>
- 황예은, 양수진 (2020). 중년 근로자의 그림과 정신
적 안녕감: 삶의 의미와 은퇴불안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1), 163-184.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7659932>
- KOSIS (2026. 07. 04.).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에서 2026년 7
월 4일에 자료 얻음.
- Berk, L. E. (2007). **생애발달**. 이옥경, 박영신, 이
현진, 김혜리, 정윤경, 김민희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
- Carasso, E., & Segel Karpas, D. (2024).

- Marital strain and emotional intimacy in midlife couples: The moderating role of empathy. *Personal Relationships*, 31(3), 648-663.
<https://doi.org/10.1111/pere.12559>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Dubuque, IA: Brown & Benchmark.
<https://psycnet.apa.org/record/1993-98880-000>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Y: Norton.
- Feshbach, N. D. (1978). Studies on empathic behavior in children.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8, 1-47.
<https://pubmed.ncbi.nlm.nih.gov/360290/>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London: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429471643>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https://doi.org/10.1177/0265407596132007>
- Kogan, N. (1990). Personality and aging.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3, 330-346.
<https://doi.org/10.1016/B978-0-12-101280-9.50026-7>
- Lachman, M. E. (2015). Mind the gap in the middle: A call to study midlife.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2(3-4), 327-334.
<https://doi.org/10.1080/15427609.2015.1068048>
- Levinson, D. J. (199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ew York, NY: Ballantine Books.
- Long, E. C., Angera, J. J., Carter, S. J., Nakamoto, M., & Kalso, M. (1999). Understanding the one you love: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for couples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235-242.
<https://doi.org/10.2307/585632>
- Long, E. R., & Andrew, C. D.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131.
<https://doi.org/10.1037/0022-3514.59.1.126>
- Lovis-Schmidt, A., Tavener, D., Oestreich, J., & Rindermann, H. (2024). The role of emotional competence in romantic and non-romantic relationships: A meta-analysis.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0, 112813.
<https://doi.org/10.1016/j.paid.2024.112813>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Vol. 11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s://ixtheo.de/Record/799818755>
- Oliver, L. D. (2017). Function and Dysfunction in Distinct Facets of Empath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Canada)*.
<https://ir.lib.uwo.ca/etd/4502>
- Péloquin, K., & Lafontaine, M. F. (2010). Measuring empathy in couple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2), 146-157.
<https://doi.org/10.1080/00223890903510399>
- Rosen, N. O., Mooney, K., & Muise, A. (2017). Dyadic empathy predicts sexual and relationship well-being in couples transitioning to parenthood.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6(6), 1-17.
<https://doi.org/10.1080/0092623X.2016.1208698>
- Shalev, I., Eran, A., & Uzefovsky, F. (2023). Fluctuation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interact with stress to predict mental health, parenting, and relationship outcomes. *Frontiers in Psychology*, 14, 1237278.
<https://doi.org/10.3389/fpsyg.2023.1237278>
- Simpson, J. A., Orina, M. M., & Ickes, W. (2003). When accuracy hurts, and when it helps: A test of the empathic accuracy model in marit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81-893.
<https://doi.org/10.1037/0022-3514.85.5.881>
- Singer, T. (2006). The neuronal basis and ontogeny of empathy and mind reading: review of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0(6), 855-863.
DOI: 10.1016/j.neubiorev.2006.06.011
- Surakarn, A., Kleebbua, C., & Suwanwong, C. (2025). Dyadic empathy and well being: The mediating role of dyadic coping in couples. *Family Relations*, 74(5), 2397-2410.
<https://doi.org/10.1111/fare.70018>
- Thomas, G., & Fletcher, G. J. O. (2003). Mind-reading accuracy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essing the roles of the relationship, the target, and the ju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079-1094.
<https://doi.org/10.1037/0022-3514.85.6.1079>
- Toffol, E., Lussignoli, M., Aliverti, E., Capizzi, G., Bertocci, I., & Scocco, P. (2025). Empathy, psychopathology and suicidal behavior: A case - control study. *BMC Psychiatry*, 25, 811.
<https://doi.org/10.1186/s12888-025-07230-3>
- Ulloa, E. C., Hammett, J. F., Meda, N. A., &

Rubalcaba, S. J. (2017). Empathy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among cohabitating couples: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he Family Journal*, 25(3), 208-214.

<https://doi.org/10.1177/1066480717710644>

Spousal Empathy and Midlife Crisis Among Middle-Aged Couples: Actor and Partner Effects by Empathy Type and Gender

Yang Jaewon¹

Yang Su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The Actor -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as used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toward one's spouse as relationship-specific traits and midlife crisis in 126 couples aged 50 - 64 years. Cognitive empathy showed significant negative actor effects for both spouses, whereas only husbands' cognitive empathy showed a negative partner effect on midlife crisis for wives. Husbands' emotional empathy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whereas wives' emotional empathy showed significant negative actor and partner effects on midlife crisis for themselves and their husbands. Effect siz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spouses or paths. Overall, significant partner effects emerged only for husbands' cognitive empathy and wives' emotional empathy, showing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empathy type and gender.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multidimensional empathy and gender differences in interventions for middle-aged couple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middle-aged married couples, gender,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mid-life crisi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